



## 파란색 꼬마 물고기가 나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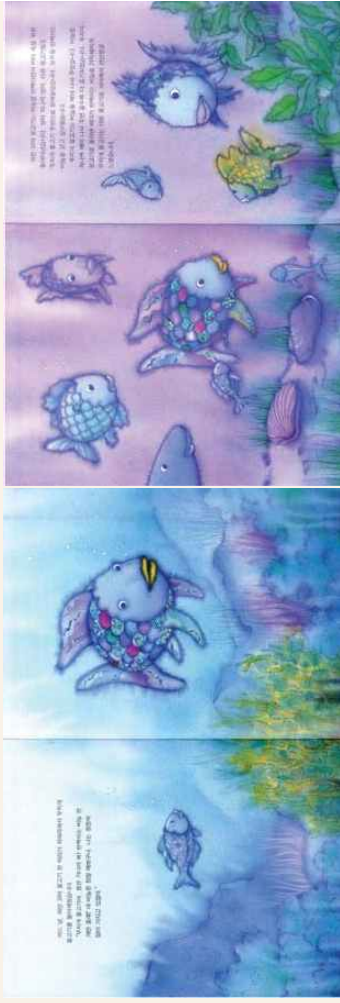
❶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혹시 윌드루 6월호에 소개되었던 필로드 부종의 이름다운 책, 기억하시나요? 토끼 형제, 흰 에르네스트와 동생 빅토르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빅토르가 그림책을 보며 토끼가 여우를 혼내주는 장면을 보며 기뻐하자 흰 에르네스트가 책에 있는 것을 다 믿으면 안된다고 훈계하는 장면이 반복되지요. 흔히 독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빅토르와 같은 '몰입하여 읽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에르네스트가 취한 '저항하며 읽기도 그에 못지않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모든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설적보다는 다양한 설득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품 안에서 독자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작품의 소재를 신중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특정한 인물을 설정하고, 대조되는 상황을 배치하기도 하고, 작품 안에서 직접 평가적인 서술을 하기도 하고, 결말을 짓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득장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는 독서 행위를 '저항하며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에서 '저항하며 읽기'는 모든 독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기독교 교사와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TV나 컴퓨터의 콘텐츠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림책에서 '저항하며 읽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 어린이를 위한 쉽고 단순한 책이라는 선입견도 작용하겠지만 그것보다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그림책의 80% 이상이 번역물인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외국 그림책을 번역·출판하려 할 때 국제적인 그림책 상의 수상경력이나 작가의 인지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그러한 책들이 더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림책의 평가에 있어서 예술성과 독창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작품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일은 이 시대의 장신을 분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두 권의 그림책을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바벳 쿨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엄마가 알을 낳았다(Mummy laid an egg!)』와 브라이언 멜로니가 글을 쓰고 로버트 잉펜이 그린 『살아있는 모든 것은(LifeTimes)』입니다. 바벳 쿨은 생활습관, 성교육, 이혼, 성장과 노쇠, 옛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고정관념을 깨는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내기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입니다. 그의 그림책은 유아 교사와 부모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독특한 작품 스타일은 어린이 문화 관련 저서와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 질 정도로 학술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작품만 10여 권이 되며 2011년에는 어린이문학교육 학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과정을 즉석에서 보여주어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엄마가 알을 낳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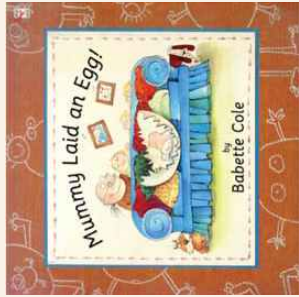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거실 소파에서 동물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딸과 아들에게 와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공룡이 아기를 가져온다, 생강뿔처럼 구워 나온다, 비유를 써서 나온다, 루브에서 짜듯이 나온다... 식으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자신들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서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는 알이 있고 아버지는 고환에 씨가 있어서 그 씨가 루브를 통해 밖으로 나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알과 합쳐져 아기로 자라고 어느 날 엄마 몸 밖으로 아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실문을 열자 소, 말, 개, 고양이, 토끼 등 온갖 동물들의 암컷이 새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구석에서 부끄러워 입을 가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보시겠어요? 다 그런걸요."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또 다른 작품, 『살아있는 모든 것은』은 주로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을 그리는 로버트 잉펜이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잉펜은 1988년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데르센 상을 받았으며 10여 년 전 볼로냐 어린이 책 전시회에서는 그 해의 논픽션 작가로 선정되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10여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 책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잉펜은 1988년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데르센 상을 받았으며 10여 년 전 볼로냐 어린이 책 전시회에서는 그 해의 논픽션 작가로 선정되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10여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 책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문지로 쓰인 글 텍스트는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모래 위와 같이 있고 끈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잉펜의 그림은 모래 위와 같은 게, 전혀 딱딱하고 남은 나비의 날개 등 생명이 떠나간 육체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 람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삶을 삽니다. 육칠십 년을 사는 동안 자라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는 동안 병을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결국 수명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절로 생긴 것이며 정해진 시간 만큼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의 비벳 콜의 작품이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게 인간의 출생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작품은 매우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생명체의 죽음과 사물의 소멸을 노래합니다. 분위기와 어조가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 우연히 태어난 생명으로서 인간을 보고 있는 인간관은 동일합니다.

저는 기쁨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 두 작품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묻곤 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온 반응을 가르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 관점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것은 기독 학생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현대 학문을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함몰된, 신앙과 학문 마로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 작품을 안에 숨겨진 실투장치를 분석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의 캐릭터를 분석한다면, 어리숙해 보이는 부모들이 아기의 출생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실명을 늘어놓는 반면, 당차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은 소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유형의 캐릭터 중에서 독자들은 자연히 아이들의 편에 서게 되겠지요.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서는 잉렘의 호소력은 그림과 함께 동식물과 사물의 유한한 삶이 불리며 그 연장선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증조할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 앞에 할머니, 엄마, 아이 둘이 독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결합하여 조성된 분위기에서 인간의 삶도 죽음으로 끝이라는 결론은 호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투 장치에 덧붙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유명세도 독자의 '지향하며 읽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 작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충출히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유명세와 권위가 배제된 작품의 세계관 분석은 종종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인 비판적인 사고로 이끌고 점차 그들은 자신이 죽음으로서 무(無)가 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종교가 없지만 웬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아의 '지향하며 읽기'를 발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기로 하지요. 『무지개 물고기는 스위스 태생의 페스트렐러 그림책 작가 마르쿠스 피스틴의 그림책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보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홀로그램 특수 인쇄 기법으로 그려진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푸른 바닷속에 빛나는 은빛 비늘을 가진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시다.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의 비늘을 보며 감탄하고 무지개 물고기와 놀고 싶어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잘난 척하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와서 비늘을 하나만 달라고 요청하자 무지개 물고기는 소리를 지르며 거절합니다. 마음이 상한 파란 꼬마 물고기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일을 이르고 결국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워진 무지개 물고기가 문어 할머니에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자 문어 할머니는 그에게 비늘을 나눠주라고 조언하고, 그 조언에 따라 자신

의 빛나는 비늘을 한 개씩 다른 물고기에게 나눠준 무지개 물고기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놀니다. 친구와 매일 무엇인가를 놓고 타격태극 다투는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터넷 서평을 보니 교사들과 엄마들이 이 그림책을 '나누기' 미덕을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아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크롤이나 미술 활동을 한 후 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더군요.

저도 오래 전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이 책을 읽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파란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에 다가와서 비늘을 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잠시 멈추더니 "엄마, 파란색 물고기가 나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반응에 놀라 "왜?" 라고 묻자 "왜 남이 가진 것을 달라고 하나요? 그리고 무지개 물고기를 따돌렸잖아요"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척 난처해졌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무지개 물고기는 파란 물고기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욕심꾸러기에 심술쟁이이며 파란 물고기는 피해자인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란 물고기는 작은 꼬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 때 어린 아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판단하기에 앞서 파란 꼬마 물고기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의 것을 욕심낼 뿐 아니라 무지개 물고기를 왕따시킨 파란 꼬마 물고기의 행동이 더 거슬렸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이 작품에 '있는 사람' 것을 나누어서 모두가 평등해짐이라는 암묵적 가치관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훈이나 주제 가르치기를 목적으로 한 책임의 위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작품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들의 '이유 있는' 예외적 반응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유아의 '이유 있는' 반응을 경청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성인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작가의 권위에 매여 있지 않은 유아들의 생각과 언어는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고 웃게 하고 혹은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림책을 볼 때에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읽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직 그들이 살아온 시간이 짧아서 세상의 경험과 문화적 지식, 언어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신선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분별력'이라는 나무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미디어가 쏟아내고 있는 광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뉴스, 만화, 게임,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기록 부모들만이 자녀들의 미디어를 '저항하며 읽기'를 격려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자녀들은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이야기에게 무분별하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어그리고 거스리"는(2:15)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심리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 『출근은 그림책 읽기(현은자, 최강, 윤아혜)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